

2024 국회의원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

全南日報



광주지역 당선자와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종택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이 15일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서 당선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공약 실천·지역 현안 해결’ 강력한 의지 피력

당선 소감·의정활동 다짐

지방소멸 대응·민생 회복 한목소리 당선인 18명 협치로 호남정치 회복 전남 의대·군공항 이전 꼭 성사

15일 전남일보가 주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서 당선자들은 당선 소감 발표를 통해 공약 실천에 대한 약속과 함께 지역 현안 문제에 강한 해결 의지를 피력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정진욱 동남갑 당선자는 “동남갑에는 도시첨단산단, 에너지산단 등 두 산단이 있으나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광주의 현실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들이 광주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경제통’으로 불리는 안도걸 동남을 당선자는 “제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를 광주·전남 기회의 발판 삼아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관광 등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 뚝뚝 뭉쳐 시대에 맞는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유권자들의 희망과 염원을 성과로 갚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인철 서구갑 당선자는 “선거공약이

‘부자서구’였다. 중앙에서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그 돈을 통해 광주도심융합특구의 조속한 개발 및 광주전 문화 재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중앙정치를 힘 있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양부남 서구를 당선자는 “서구와 남구, 나주 일대의 행정 구역은 유지하되 문화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인구 100만 규모의 ‘밀리언시티’, ‘행복단지’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의 유일한 청년 당선자인 정준호 북구갑 당선자는 “호남에서는 경선을 통과하는 것이 청년 정치인에게 가장 큰 장벽”이라며 “지역에서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도록 광주시당과 협의해 청년 경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광주 원도심의 최대 현안인 광주역과 관련해 인근에 새로운 상권을 만드는 등 새로운 광주역 시대를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북구를 당선자는 “내일은 4월 16일이다. 2014년, 300명의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리고 이후, 청년들이 이태원 거리에서 쓰러져갔다”며 “그 어느 나라보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군택 광산갑 당선자는 “전남 광산군

주민에서 광주 광산군 주민이 되기까지 광주와의 세월을 함께했다”며 “광주와 전남은 지금까지도 하나라고 생각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협력할 때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등 모두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산을 당선자는 “못 살겠다, 심판하자”는 민주당의 총선 구호에 응답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당선자들 중에서 초선의원이 많아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답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목포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초선의 용맹함도 필요하지만, 재선의 유능함과 다선의 노련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목포 시민들이 저를 다시 뽑아주신 데는 재선의원의 역할을 다하라는 엄중한 책임론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갑 당선자는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남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 여수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여수를 당선자는 “지난 4월 10일,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위

대한 선택과 심판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켜 세우고, 초심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과 여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순천광양구례곡성갑 당선자는 “초선의원으로서 뒷자리에 안주하는 정치인이 아닌 앞장서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도청과 도교육청, 도의회 모두 전남 서부권에 있는 만큼 전남 의대는 동부권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46년 만에 탄생한 여성 국회의원 권향엽 순천광양구례곡성을 당선자는 “순천·광양·구례·곡성은 미래먹거리 발전과 인구소멸 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클러스터를 구축해 동반성장에 앞장섬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바이오반도체 등 제철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나주화순 당선자는 “항상 정치가 좋아지면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18명의 당선자와 함께 힘을 합쳐 지역민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당선자는 “벌써 교례회 3번째 참석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운이 좋아서 당선될 수 있지 않았을

까 생각한다”며 “이미 네 번 지역 주민들의 검증을 받은 만큼, 정치를 통해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자는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당선자의 이름이 불리자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 당선자는 올해 81세로 제22대 총선 최고령 당선자다.

박 당선자는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들의 ‘절묘한 신의 한 수’다. 민주당에 180석 이상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협치를 통해 정치를 되살리라는 의미”라며 “이럴 때 일수록 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 효과적인 투쟁을 해야 최대 목표인 지방선거 승리와 권력교체를 이룰 수 있다. 광주·전남이 이에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당선자는 “교례회를 만들어주시는 전남일보 이재욱 사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에서 다양한 전남 현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 ‘소는 누가 키우냐’는 유머를 빌려 전남의 농사는 저 서삼석이 짓겠다는 말씀드린다”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지역 발전·민생 최우선 두고 의정활동 펼칠 것”

당선자 방명록 문구 살펴보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에 참석한 18명의 당선자들은 방명록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가장 많은 당선자들이 강조한 메시지는 ‘지역 발전’과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내용이었다.

광주 동구남구갑 정진욱 당선자는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며 의정활동 하겠습니다’라고 썼고, 광주 서구갑 조인철 당선자는 ‘감사합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힘 있는 중

의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당선자도 ‘시민의 뜻을 사즉생 각오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광주 북구를 전진숙 당선자는 ‘늘 주민들 속에서 함께 민심의 참 대변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여수시를 조계원 당선자는 ‘주권자 국민의 심판, 잘 받들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민생을 강조했다.

전남지역 다선 의원들은 오랫동안 사용해 온 구호를 방명록 문구로 활용했다.

3선에 성공한 나주·화순 신정훈 당선자는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꼭 만들

겠습니다’는 선거캐치프레이즈를 남겼으며 4선 중진이 된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당선자는 ‘가슴 따뜻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는 글로 지역민들에게 감사함을 표실했다. 3선에 오른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당선자는 신안의 보석, ‘소금’을 활용해 ‘소금처럼 변함없이’라는 문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정과 포부를 동시에 드러냈다.

지역 현안 및 지역 발전을 강조한 후보들도 있었다.

광주 동구남구를 안도걸 당선자는 ‘대

한민국의 발전, 광주의 경제 대도약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밝혔으며 광주광산구갑 박군택 당선자는 ‘대한민국의 정상화, 호남의 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재선에 성공한 목포 김원이 당선자는 ‘목포의대 유치! 부족한 의료인력 양성, 의료 균형발전!’이라는 문구를 통해 전남 최대 현안인 의과대학 설립과 의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권향엽 당선자는 멋진 필체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혼신을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겼으며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당선자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만이 인구소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전남일보에 응원을 전한 당선인도 있었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당선자는 ‘전남일보 화이팅! 호남정신 화이팅!’이라는 문구를 방명록에 적었다.

이외에 여수시갑 주철현 당선자는 ‘이재명과 함께 호남 민주정권 창출’이라는 글을 남겼으며 5선에 성공한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당선자는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해 상생·통합의 정치가 필요합니다’는 문구를 통해 협치를 강조했다.

광주 북구갑 정준호 당선자는 ‘호남의 미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산을 민형배 당선자는 ‘광주답게! 당당하게!’라는 짧지만 강렬한 문구로 포부를 드러냈다.

곽지혜 기자